

(2023.8.25.)

중앙아시아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전망

이지은(한국외대)

[최근 발생한 중앙아시아 역내 주요 정세]
1. 정권 교체와 주요 정치변동
2. 급격한 이슬람화(이슬람의 정치 세력화, 사회 보수화)
3. 중앙아 국가 간 협력(갈등 감소-국경 획정, 경제 협력 증대)
4.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중앙아 관계

1. 정권 교체 (타직 제외 4개국) 및 주요 정치변동

1)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토카예프(Kassym Jomart Tokayev)	토카예프(Kassym Jomart Tokayev)
재임 기간	1991-2016	2016-2022.1 *현직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의한 양두체제	2022.1-현재 *양두체제 해체 및 토카예프 중심 권력 독점 시작
주요 사건	-	2022.1 카자흐스탄 시위	2022.3 개헌 2022.11 대통령선거(토카예프 재선 성공)
정치 체제	대통령제		

- 독립 이후부터 장기집권하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2019년 대통령 자진 사퇴, 이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 Jomart Tokayev) 대통령 집권
- 나자르바예프는 2019년 3월 20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초대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실권을 행사,¹⁾ 외형상 양두체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양상 보임
- 그러나 2022년 1월 발생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이후, 토카예프 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혁신과 개혁을 추진.
 - 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의 모든 권력 박탈, 친 나자르바예프 엘리트 집단(전 국가안보국장 Kasim Massimov, 전 총리 Askar Mamin)도 퇴출
- 반정부 시위 진압 직후, 2022.1.11.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스카르 마민 정부 해체, 새 내각

1) 김소연, 제성훈. “2022년 카자흐스탄 정치변동의 내용과 의미: 엘리트 집단 교체와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7(1), p. 282. (2023).

구성을 발표

- 총 18명 장관 중 11명이 기존 정부 고위급 인사 그대로라 사실상 전격적인 엘리트 교체는 없었음(전 부총리 Alikhan Smaiyllov 총리 지명, 외교부장관(Mukhtar Tleuberdi)과 내무부장관(Yerlan Turgumbayev) 유임, 2명의 전 장관(Roman Sklyar, Bakhyt Sultanov)의 경우 부총리직으로 이동²⁾)
- 연이어 헌법 개정 발표, 조기 대선 등 강행
- 2022.11월 대선에서 득표율 81%로 재선에 성공
- 2023.3 총선(하원) 실시 및 신정부 구성(Alikhan Smaiyllov 총리(연임))

[2022 카자흐스탄 개헌: 현직 대통령 중심의 권력 개편]

- ‘강한 대통령(strong President) - 영향력 있는 의회(influential Parliament) - 책임 있는 정부(accountable Government)’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³⁾
- 초대 대통령(나자르바예프) 헌법적 지위 박탈: 초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모든 조항(42조 5항, 46조 4항, 71조 1항, 91조 2항) 삭제, 나자르바예프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누려온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 상실⁴⁾ -> 토카예프 현직 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권력 개편 시작점
-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⁵⁾: 임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41조 1항), 연임 및 중임 금지(42조 5항) 등
- 반면, 대부분 강력한 대통령 권한 유지: 대통령은 상·하원의장 및 총리와 ‘협의’만으로 의회(상·하원 전체) 또는 하원을 해산할 수 있고(63조 1항), ‘민족회의’의장을 겸직하면서 상원의원 정수(定數)의 20%에 해당하는 1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후보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임명 가능⁶⁾
- 헌법재판소 신설: 상원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장과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 4인, 상원이 임명하는 3인, 하원이 임명하는 3인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71조 1항, 2항, 3항)
- 2022 헌법 개정에 따라 신규 정당 등록 기준 20,000명 ▶ 5,000명 축소, 정당 회원수 1,000명 ▶ 700명 축소⁷⁾

2) Kazakhstan's New Cabinet Features Many of the Same Ministers, <https://thediplomat.com/2022/01/kazakhstans-new-cabinet-features-many-of-the-same-ministers/> (2023-08-19).

3)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s political reform programme,” <http://www.akorda.at/en/president-kassym-jomart-tokayevs-political-reform-programme-172256>

4) 김소연, 제성훈. (2023). 2022년 카자흐스탄 정치변동의 내용과 의미 :엘리트 집단 교체와 헌법개정을 통한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7(1), 299.

5) 축소 사항: 대통령의 정당 가입 금지(43조 3항), 대통령 친족의 공직 및 준 국가기관장직 진출 금지(43조 4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원의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되, 그중 5명은 민족회의의 제안으로 임명하도록 하고(50조 2항), 기존 민족회의의 하원의원 9명 선출 권한 삭제(51조 1항). 광역자치단체장의 조치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44조 3항),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대통령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87조 4항)

6) 김소연, 제성훈. (2023). 2022년 카자흐스탄 정치변동의 내용과 의미 :엘리트 집단 교체와 헌법개정을 통한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7(1), 300

[2023.3.19. 하원 선거]

- 집권여당 아마나트 Amanat 당 53.9%의 득표율로 과반수인 40석 유지, 비례대표석 29석 가운데 23석 얻으면서, 총 98석 가운데 63석 확보⁸⁾
- 선거 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적으며, 선거 일주일 전 유권자 62.5% 어떤 정당도 본인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투표, 투표율은 52.8%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⁹⁾
- Respublica당¹⁰⁾, Baytaq당¹¹⁾ 창당(두 당은 토카예프 집권 이후 공식 등록된 새 정당)

[2022.1. 반정부 시위]

- 2022.1 카자흐스탄 시위는 사실상 독립 이후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정부 규탄 시위로 토카예프 정부 출범 이후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상황
- 독립 이후 누적된 경제적 불평등, 정치권의 부패 등이 표면적 시위 화두로 등장
- 동시에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부유층이 자본을 독점하고 지대 추구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반면, 생산계층은 자유시장경제 내 부조리, 리스크,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불만 고조
- => 카자흐스탄 경제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 고조
- 반정부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시위 주범을 외부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CSTO에 평화유지군 투입 요청-> 이후 일단락
- 토카예프 정부의 대응: 시위대의 불만 사항의 근본적인 원인을 결국 나자르바예프 전 정부 시기 누적된 경제 불평등과 극심하고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에 있다는 발언¹²⁾
- 결과적으로 나자르바예프를 권력 정점에서 축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현재 나자르바예프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일부 나자르바예프 측근 권력에서 배제(주요 측근: 아스카르 마민, 카림 마시모프)¹³⁾
- 반정부 시위 이후 추진된 개혁의 골자는 서민의 복지 수준 향상, 경제 불평등 완화(빈부격차 감소, 인플레이션 제동 등), 독립된 감독기관이 ‘국민기금’관리 등
- 결국 현 토카예프 권위주의 정부의 공고화는 경제의 원만한 순환,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 2022.1 시위 이후 추진된 일련의 개혁의 성공 여부가 토카예프 권력의 공고화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7) “В Казахстане упростят процедуру регистр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 Токаев”
2 0 2 2 0 3 1 6
<https://vlast.kz/novosti/49162-v-kazahstane-uprostat-proceduru-registracii-politiceskih-partij-tokaev.html>

8) Gaziz Abishev “Has Kazakhstan Become More Democratic Following Recent Elections?”
2023.04.12.,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89513>

9) “Электоральные предпочтения казахстанцев” 2023.03.13.,
<https://demos.kz/jelektoralnye-predpochtenija-kazahstancsev/>

10) 기업인 정당,
https://www.inform.kz/ru/novaya-partiya-respublica-zaregistrirovana-v-kazahstane_a4025058

11) 녹색당, <https://rus.azattyq.org/a/32155432.html>

12)

13) 사실상 두 인물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사임을 발표하기 전 구성된 정부 구성원이며 나자르바예프의 오래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토카예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면서도 나자르바예프의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인물을 토카예프 정부의 안보(마시모프)와 정부 수장(마민)으로 임명한 것으로 분석됨.

2) 우즈베키스탄

이름	카리모프(Islam Karimov)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재임 기간	1991-2016.9	초대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 (2016.9-2016.12)	재임 1기 2017.1.1.-2021.10 재임 2기 2021.11-2023.7 재임 3기 2023.7- 현재
주요 사건	2005 안디잔 사태		2022 카라칼팍스탄 시위
정치 체제	대통령제		

- 독립 이후부터 장기집권하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2016년 9월 서거함에 따라 동년 12월 조기 대선 실시,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당선¹⁴⁾
- 미르지요예프는 2016년 권한대행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집권 중으로, 가장 최근 대선은 2023년 7월 9일 실시된 조기 대선(득표율 87.71%)이며,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3기에 성공¹⁵⁾
- 미르지요예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공고화됐다는 평가¹⁶⁾
- 국가 이미지 개선, 주변 중앙아 국가들과의 갈등 해소(국경 문제 등), 역내 통합 관련 이슈 주도(아프가니스탄 재건, 역내 경제 통합 의지 피력 등)

[가시화된 현 대통령 장기집권 가능성]

- 2022 개헌 초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5년 →7년), 중임 횟수 연장 등의 내용으로 현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활용 여지 높음: 실제로 2023 대선 승리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됨¹⁷⁾

14) 고재남(2020). 중앙아시아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 *Diverse Asia*, 3(3), p. 2. <http://diverseasia.snu.ac.kr/?p=4659> (검색일: 2023. 08. 07)

15) 김경민. “[동향세미나]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배경과 전망” 2023.07.10.,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1803&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07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3.08.07.); 2016.12 대선, 2021.10 대선, 2023.7 조기대선(미르지요예프 당선)

16) Ferran Izquierdo-Brichs, Francesc Serra-Massansalvador, *Political Regimes and Neopatrimonialism in Central Asia*,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1, 145; <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23-07-13/elections-uzbekistan-consolidation-mirziyoyev-regime> (2023-08-23);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0709-uzbekistan-holds-vote-set-to-cement-president-s-rule> (2023-08-23).

17) EMERiCs. “우즈베키스탄, 4월 30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최” 2023.03.13.,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No=344006&mid=a101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2.)

[2022.7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반정부 시위]

- 2022.7.1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치공화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라칼파크스탄 (Karakalpakstan) 자치공화국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단순한 주 정부(viloyat)로 격하하고 분리 독립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발표.¹⁸⁾ 이 밖에도 카라칼파크스탄 법체계가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법체계와 일치 필요성 제기¹⁹⁾
- 2022.7.1.-2. 카라칼파크스탄에서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 발발
 -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수도 누쿠스의 중앙 시장에서 행진과 집회가 있었으며, 지방 정부 건물을 습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²⁰⁾
 - 카라칼파크스탄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된 Dauletmurat Tajimuratov "헌법질서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²¹⁾ Tajimuratov 16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16명의 피고인은 최대 8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²²⁾
- 시위가 격해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7월 2일,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지위 관련 헌법 개정안 전면 철회, 재검토 공표했으며,²³⁾ 이후 시위대 해산

[2023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 2022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헌 필요성 언급 이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 2022년 당시 제안된 개헌안은 64개 조항에 대한 200개 이상의 수정안 포함, 6개의 새로운 조항이 도입,²⁴⁾ 헌법 개정 절차는 우즈베크 헌법 제 127조에 근거, 상하원 총수 2/3 이상 다수결 채택 벌를 혹은 국민투표로 인해 변경 가능²⁵⁾
- 2022년 시작된 개헌 논의가 카라칼파크스탄 시위로 인해 잠시 중단된 후, 같은 해 말 논의 본격화, 2023.4.30. 국민투표 실시 및 개헌안 통과(독립 이후 총 7번 개헌)
- 주요 골자²⁶⁾

18) 카라칼파크스탄 지위 변경과 관련된 헌법은 제 70조, 71조, 72조, 74조, 75조임.

19) The diplomat. "Karakalpak Protests Reflect the Shattered Promise of Mirziyoyev's 'New Uzbekistan'." 2022.07.05., <https://thediplomat.com/2022/07/karakalpak-protests-reflect-the-shattered-promise-of-mirziyoyevs-new-uzbekistan/> (검색일:2023.08.08).

20)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We Will Resolutely Continue the Course of the Democratic Reforms Based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ew Uzbekistan» 2021.11.06., <https://president.uz/en/lists/view/4743> (검색일:2023.08.08.) "

21) Eurasianet. "Uzbekistan: Appeal case of Karakalpakstan protesters nears verdict" 2023.08.04., <https://eurasianet.org/uzbekistan-appeal-case-of-karakalpakstan-protesters-nears-verdict> (검색일:2023.08.12.)

22) Chris Rickleton "In Uzbekistan's Karakalpakstan, Trial Over Deadly Unrest Makes A 'Hero' Of Its Intended Villain" 2023.02.01., <https://www.rferl.org/a/uzbekistan-karakalpakstan-deadly-unrest-trial-tajmuratov/3225120.0.html> (검색일:2023.08.12.)

23) Reuters. "Uzbekistan scraps plans to curb Karakalpak autonomy after protests." 2022.07.0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protests-break-out-uzbek-autonomous-region-over-constitution-reform-plan-2022-07-02/> (검색일:2022년 8월 5일).

24) Uzdaily.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ublished for discussion." 2022.06.25., <https://www.uzdaily.uz/en/post/73918> (검색일: 2022년 8월 5일).

25) The Government portal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ttps://www.gov.uz/en/constitution/english#127> (검색일:2022.04.12.)

- 권력구조 변경: 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임기(5년→7년) 변경, 2023년 두 번째 임기를 역임 중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임기 횡수는 초기화되며, 2023 대선에서 당선 시, 최대 204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됨.²⁷⁾
- 의회 권력 강화: 현행 헌법에 명시된 하원의 5개 권한은 신헌법을 통해 12개로 증가, 상원은 14개에서 18개로 증가
- 상원 의원 수 감소(100명 →65명), 우즈베키스탄 14개 지역에서 각 4명 상원의원 선출, 9명은 대통령이 임명(현행 법률 상, 각 지역에서 6명 상원의원 선출, 16명 대통령 임명 구조)
- 법 집행 및 특별 기관에 대한 상원의 통제 강화: 검찰총장과 회계장(Chairman of the Accounts Chamber)의 경우, 상원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음. 국가안보처장은 대통령이 상원과 협의를 거쳐 임명(현행법은 상원은 검찰총장, 회계실장, 국가안보처장 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법령을 승인함)
- 반부패 및 반독점 기관장은 상원에서 선출(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 인권 개선: 인권과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여 기존 헌법의 65% 변경됨.²⁸⁾

• 헌법 개정 주요 의미

=> 미르지요예프 권력 강화에 초점을 두되, 기존 헌법에 비해 의회의 권한 강화 방향(하원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상원 의원 감소), 인권 관련 법제도 개선

=> 지방 권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선출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출하여 해당 지역민에 대한 accountability 높일 수 있다는 평가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 상원, 하원 권한을 강화²⁹⁾하여 의회 권력이

26)

27) EMERiCs. “우즈베키스탄, 4월 30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최” 2023.03.13.,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44006&mid=a101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2.)

28) prnewswire. “Uzbekistan announces constitutional reform referendum.” 2023.03.15., <https://www.prnewswire.co.uk/news-releases/uzbekistan-announces-constitutional-reform-referendum-301771364.html> (검색일:2023년 4월 11일)

29) 헌법 개정 의회 권력 관련 주요 변화(https://meningkonstitutsiyam.uz/konstitutsiya_uz.pdf , New Central Asia. “Uzbekistan constitutional reform briefing document”2023.03.24., <https://www.newscentralasia.net/2023/03/24/uzbekistan-constitutional-reform-briefing-document/>)

상원

- 상원 의원 수 감소(100명 →65명), 우즈베키스탄 14개 지역에서 각 4명 상원의원 선출, 9명은 대통령이 임명(현행 법률 상, 각 지역에서 6명 상원의원 선출, 16명 대통령 임명 구조)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검찰총장 후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재정부 장관 후보는 상원에서 먼저 고려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반부패기관장 및 반독점기관장은 상원에서 선출(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국가보안기관 후보는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법 집행 및 특별 기관에 대한 상원의 통제 강화 : 검찰총장과 회계장(Chairman of the Accounts Chamber)의 경우, 상원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음. 국가안보처장은 대통령이 상원과 협의를 거쳐 임명(현행법은 상원은 검찰총장, 회계실장, 국가안보처장 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법령을 승인함).

하원

- 하원에서 발의된 법률 60일 이내 상원에서 검토, 기한이 지나면 법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이후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 사법 및 통제 기관, 법 집행 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지만, 사실상 1) 대통령이 지니고 있던 임명권을 상·하원과 협의 혹은 추천을 거쳐 임명으로 변화, 2) 하원에서 총리 선출 또한 폐쇄적 정당구조로 친정부 정당들만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획기적인 권한 확대라고 보기는 어려움

3) 키르기스스탄

이름	아카예프(Askar Akayev)	바키예프(Kurmanbek Bakiev)	오투바예바(Roza Otunbayeva) *임시정부	아탐바예프(Atambayev)	제엔베크코프(Jeenbekov)	자파로프(Japarov)
재임기간	1991-2005	2005-2010	2010-2011	2011-2017	2017-2020	2020-현재
주요사건	2005 톨립 혁명	2010 2차 톨립 혁명	헌법 개정(대통령제+내각제)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중앙아 최초) 의회 역할 강화	2020 반정부 시위	헌법 개정
정치체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출처 : 고재남(2020). 중앙아시아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 Diverse Asia, 3(3), p. 2. <http://diverseasia.snu.ac.kr/?p=4659> (검색일: 2023. 08. 07), EMERiCs.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대행 체제로 안정화” 2020.11.06.,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08927&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 08. 07)

-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잦은 정권 교체를 겪어옴. 현(現) 대통령은 자파로프로 2020년부터 재임
- 아카예프 시기(1991-2005): 1994년, 1996년, 2003년 3차례 헌법 개정,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행태적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하고 친족·파벌·피후견자(client)에게는 특권과 특혜를 제공, 권위주의 통치³⁰⁾
- 2005 톨립 혁명: 2005년 3월 총선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시위로, 그 결과 2005년 7월 대선이 실시되어 아카예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바키예프(Kurmanbek Bakiev)가 의회제로의 개헌과 부패척결을 약속하면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의회제 개헌되지 않음
- 2010 2차 톨립 혁명: 2010년 4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바키예프 정권 축출 및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하에서 오투바예바가 대통령을 맡았으며, 의회제 요소를 도입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단행
 - 2010 개헌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6년 단임에 국방과 안보를, 나머지 내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력 분점이 핵심
- 아탐바예프(2011-2017): 대통령에서 퇴임 이후, 비슈케크 열병합발전소(Bishkek Thermal

능 강화.

- 의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마질리스의 권한 확대.
- 총리의 임명은 하원의 승인(과거 총리 후보는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해 선출되어 대통령 임명되었으나 폐지) 총리 후보는 하원에 대표되는 정당의 모든 파벌과 협의 후 대통령에게 제안.
- 하원은 내각 구성원의 보고를 들은 후, 대통령에게 그의 해임을 제안할 권리가 있음.

30) 김태연. 2020. “키르기스스탄 정치체제의 특징과 현상: 독점적 후견주의에서 경쟁적 후견주의로, 그리고 부패” Diverse Asia. 3(3), <http://diverseasia.snu.ac.kr/?p=4669>

Power Station) 현대화 사업 관련 부패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후임 대통령인 제엔베코프와 의 불화로 인함이라는 분석이 있음.³¹⁾ 2019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권력 남용을 이유로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³²⁾

- 제엔베코프(2017-2020): 아탐바예프 정부 시절 총리 역임,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중도 사퇴
- 2020 반정부 시위: 2020년 10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 발발. 2020년 10월 14일 키르기스 의회에서 자파로프를 총리로 선출,³³⁾ 제엔베코프 대통령 사퇴 (2020.10.15.)³⁴⁾
 - 키르기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조기 사임 시 의회 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당시 의장이었던 이사예프(Kanat Isayev)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부
 - 시위 당시 자파로프 지지자들이 많았으며 자파로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³⁵⁾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자파로프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직하게 됨
- 자파로프(2020-) : 2021년 1월 10일 대선을 통해 대통령 취임
 -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나,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헌법 개정을 주도하여 자파로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³⁶⁾
 - 2021.1. 대선 실시(역대 최저 투표율, 39.12%), 대통령 취임했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³⁷⁾
 -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라는 평가³⁸⁾

31) Rovshan Ibrahimov. “[전문가오피니언]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 체포가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9.11.19.,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272506&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2&pageCnt=10 (검색일: 2023.08.08.)

32)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의회, 전임 대통령 사면권 박탈 2019.07.19.,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26717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100&search_area=¤tPage=3&pageCnt=10 (검색일: 2023.08.08.)

33) 김초롱. “[동향세미나] 키르기스공화국, 조기 대선 결과와 전망” 2021.02.0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2193&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5¤tPage=4&pageCnt=10 (검색일:2023.08.10.)

34) Theo Merz “Kyrgyzstan’s president steps down amid political unrest” at the Guardian, 2020.10.15., [theguardian.com/world/2020/oct/15/kyrgyzstan-president-steps-down-amid-political-unrest](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oct/15/kyrgyzstan-president-steps-down-amid-political-unrest) (검색일: 2023.08.08.)

35) Peter Leonard, Ayzirek Imanaliyeva “Seizure of Kyrgyzstan nears completion as president steps down” at Euraisanet, 2020.10.15., web.archive.org/web/20201016225241/https://eurasianet.org/seizure-of-kyrgyzstan-nears-completion-as-president-steps-down (검색일: 2023.08.08.)

36) EMERiCs.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대행 체제로 안정화” 2020.11.06.,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08927&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0.)

37) 김초롱 “[동향세미나] 키르기스공화국, 조기 대선 결과와 전망” 2021.02.0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2193&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5¤tPage=4&pageCnt=10 (검색일: 2023.08.10.)

38) “Почему осужденного Садыра Жапарова так продвигают в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ы и как

- 2020 반정부 시위 이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총선에서 의석을 얻기 위한 최소 득표율을 기존 7%에서 3%로 낮추고, 500만 숨(한화 약 6.836만 원)이었던 선거 기탁금을 100만 숨(한화 약 1,367만 원)으로 하향 조정³⁹⁾

[대통령제로의 회귀, 대통령 권한 강화, 높아진 사회 통제]

- 2021.1. 대선 +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 대선과 동시에 대통령제 회귀냐 혹은 의회제 강화냐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표가 80% 이상⁴⁰⁾
- 2021.4. 개헌 통과: 대통령제 선포, 대통령 권한 확대와 연임 제한 철폐가 주요 골자
 - 2021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개헌안에는 1)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변경, 2) 총리가 담당하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3)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었던 입법부 의원의 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⁴¹⁾

=> 대통령 권한 강화

- 개헌 이외에 시민사회 통제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 정부의 통제 수준 강화
 - 2021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NGO의 예산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에 서명,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⁴²⁾
 - 2021년 키르기스스탄 의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 통과,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정부가 특정 정보를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 포함되어 있으며, 자파로프 대통령이 의회 방문하여 동 법에 대한 지지 요청⁴³⁾

он стал так популярен среди некоторых протестующих” 2020.10.07., <https://kloop.kg/blog/2020/10/07/pochemu-osuzhdenного-sadyra-zhaparova-tak-prodviga-yut-v-premer-ministry-i-kak-on-stal-tak-populyaren-sredi-nekotoryh-protestuyushih/> (검색일: 2023.08.08.)

39) EMERiCs.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 대행 체제로 안정화” 2020.11.06.,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927&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0.)

40) 김초롱. “[동향세미나] 키르기스공화국, 조기 대선 결과와 전망” 2021.02.0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2193&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5¤tPage=4&pageCnt=10 (검색일:2023.08.10.)

41)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2021.08.20.,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914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1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3.08.10.)

42)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2021.08.20.,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914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1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3.08.10.)

43)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2021.08.20.,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914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1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3.08.10.)

[이슬람 정당 출현]

- 2. 급격한 이슬람화에서 언급 예정

4) 투르크메니스탄

이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yrat Niyazov)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 rbanguly Berdimuhamedov)	세르다르 무하메도프(Serdar Berdymukhammedov)
재임 기간	1991-2006	2006-2022	2022- 현재
주요 사건	초대 대통령 서거로 정권 교체	부자세습	부자(父子)에 의한 양두 체제 (현 대통령 - Halk Maslakhaty 의장 (전임 대통령)) 수립
정치 체제	대통령제		

- 2016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 70세 미만 연령 요건을 없애고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⁴⁴⁾
- 2020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은 개헌을 통하여 단원제였던 의회를 상원(Khalk Maslahaty)과 하원 양원제로 분리하였으며, 2020년 10월 24일 양원제 전환 이후 새로운 선거법 채택⁴⁵⁾
 -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의원 56명 중 48명은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닌 지방 의회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며, 나머지 8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이 중 1명은 전(前) 대통령에게 자동 배분)
 - 상원은 국민투표, 대법원장, 검찰총장실, 내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안 권한 보유⁴⁶⁾
- 2020년 논의된 개헌안은 2021년 1월 1일 개헌안이 발효, 동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ymukhammedov)가 ‘혁신과 디지털화를 위한 내각회의’ 부의장으로 임명
 - 부의장은 실질적으로 부총리에 해당 직위로 1992년 개헌 이후 총리가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실질적인 2인자의 자리였음.⁴⁷⁾

44) The Economis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wins re-election with 98% of the vote”
2 0 1 7 . 0 2 . 1 8 .
<https://www.economist.com/asia/2017/02/18/the-president-of-turkmenistan-wins-re-election-with-98-of-the-vote> (검색일: 2023.08.12.)

45) EMERiCs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선거 시행... 대통령도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2 0 2 1 . 0 4 . 0 9 .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475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3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3.08.12.)

46) eurasianet, “Turkmenistan tinkers with constitution in apparent transition strategy”
2 0 2 0 . 0 9 . 2 5 .
<https://eurasianet.org/turkmenistan-tinkers-with-constitution-in-apparent-transition-strategy> (검색일: 2023.08.12.)

47) EMERiCs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선거 시행... 대통령도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2 0 2 1 . 0 4 . 0 9 .

- 2021년 상원 선거에서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됨. 당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현직 대통령인 상태⁴⁸⁾
- 2022년 2월 12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당시 대통령은 임기(7년 임기, 2017년 대선으로 2024년까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젊은 지도자의 필요성 강조, 조기 대선 공표
 - 2월 14일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가 첫 대통령 후보(81년 생)로 등록
 - 3월 12일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구르반굴리의 아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72.97%로 대통령직에 당선⁴⁹⁾
- 2022년 3월 19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퇴임, 이후 상원의장직 수행

[2022 인민평의회(Halk Maslakhaty, People's Council) 재등장-> 2022.8 정부 평의회(Döwlet Maslahaty, Government Council)로 변경]

- 2022 구르반굴리 대통령은 상원을 헌법상 최고 권위를 가진 기구인 인민평의회(Halk Maslakhaty, People's Council)로 변환할 것을 제안⁵⁰⁾ -> 제안에 따라 인민평의회로 상원 흡수
- 2022.8 입법 기관인 인민평의회 폐지(모든 입법 권한을 입법기관인 메즐리스(Mejlis)에 부여하고 단원제 실시), 독립적 대표기관인 '정부 평의회(Döwlet Maslahaty)' 설립 제안-> 2023.1 설립 승인⁵¹⁾
- 2023년 1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정부 평의회'의장
-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은 정부 평의회를 '국가 최고 기구'로 명시, 구르반굴리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을 보유, 모든 국정 업무에 개입 가능, 면책 특권 등의 초법적 권한 보유
 - 정부 평의회: 의장(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대통령(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하원의장, 대법원장, 국가안보기관장, 내각 구성원, 주지사(khyakim), 지방의회 의장 등이 포함
 - 정부 평의회는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또는 헌법 채택, 개정 및 확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제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475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3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3.08.12.)

48) EMERiCs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 선거 시행... 대통령도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2022.08.12.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475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1300&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3.08.11.)

49) EMERiCs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조기 대선 실시... 출마한 대통령 아들 당선" 2022.03.18.,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7154&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2.)

50) 인민평의회(Halk Maslakhaty)는 일종의 원로회의였는데 2008년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 인민평의회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 이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의장직을 수행했던 카자흐스탄 국가안보회의와 비슷한 기능.

51) "Народный совет (Халк Маслахаты) теперь назы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оветом Туркменистана" (in Russian). Chronicles of Turkmenistan. 15 August 2022.

안을 검토하고 승인이라는 막대한 권한 보유, 이 밖에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 방향 승인, 국가 개발 프로그램 승인, 안보 및 평화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최소 1년에 1회 개최⁵²⁾

- 전임 대통령의 이 제안은 현직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1월 21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을 Halk Maslakhaty 의장으로 임명, 카자흐스탄 의회는 다시 단원제로 변경⁵³⁾

5) 타지키스탄 (정권 교체 없음)

이름	에모말리 라흐몬 Emomali Rahmon		
재임 기간	1994-현재		
주요 사건	1992-1997 타지 내전	2012 정부군 vs 무장 반군 사이 충돌 2015 이슬람 부흥당 폐지	2021 국가지도자 호칭 부여, 면책 특권
정치 체제	대통령제		

- 1997년 내전 종식 후 에모말리 루스탐 대통령 집권, 현재까지 연임
- 대통령 임기는 연임 제한 없는 중임 가능한 7년
- 주요 정당은 타지키스탄인민민주당(집권여당), 타지크공산당. 이슬람부흥당은 2015년 테러 배후로 지목되면서 폐지⁵⁴⁾
- 독립 이후 총 00번의 대선 실시, 마지막 대선은 2020년 실시, 차기 대선은 2027년 예정
 - 에모말리 루스탐(첫째 아들, 87년 생)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 2016년 마지막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라흐몬 대통령에 대한 임기 제한 제한삭제, 대통령직 출마 연령 제한 35세->30세로 하향 => 산술적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 첫째 아들의 대선 출마 가능한 길 열어둠
 - 현 대통령이 고령에 병환이 있어 조기 대선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에모말리 루스탐: 최근 정치 경력 증가
 - 현 국회 상원의장, 외교부 차관, 듀산베(수도)시장 역임
- 이슬람의 정치세력화 엄격히 차단: 남성 수염 금지, 18세 미만의 여성과 어린이 모스크 출입 금지, 40세 미만 성지순례 금지, 타지키스탄 외부의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 허가 없이 이슬람 서적의 생산, 수입 또는 수출 금지 (2017년 시행)
- 2022.5 고르노바다흐산Gorno-Badakhshan 자치주 반정부 시위 발생- 강경 진압

52) Хронику Туркменистана. “Г.Бердымухамедов снова намерен изменить Конституцию, чтобы вернуть однопалатный парламент и Халк Маслахаты” 2023.01.12., <https://www.hronikatm.com/2023/01/rehulk-maslachaty/> (검색일: 2023.08.11.)

53) “Халк Маслахаты стал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а парламент однопалатным” 2023.01.22., <https://rus.azathabar.com/a/32234359.html> (검색일: 2023.08.11.)

54) 타지 내전 평화협정조약에 따라 종교 기반 정당인 ‘이슬람 부흥당(Islamic Revival Party of Tajikistan)’이 야당으로 기능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테러집단으로 규정후해체, 사실상 야권 부재

2. 급격한 이슬람화(키, 우)

-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은 정체성이자 전통으로 인식, 사회 내에서 지키고 장려해야 하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자칫 극단주의로 발전하여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
-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세속적,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키르기스스탄 내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가 두드러짐
- 우즈베키스탄 청년 세대 내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집단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

1) 키르기스스탄

- 이슬람 기반 정당 출현
 - 2021년 이슬람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 ‘이오만 누루’ Ыйман нуру, Light of Faith party (‘신념의 빛’) 공식 등록
 - 해당 정당의 주요 이념은 ‘이슬람 민주주의’ Islamic Democracy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2021년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5석(총 90석)을 차지하여 엄연한 공식 정당으로 활동
 - 이오만 누루당은 스스로 성격을 ‘전통적’, ‘종교적(이슬람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 이슬람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 샤리아 규범(여성의 히잡 착용, 일부다처제 허용 등)을 키르기스스탄 사회 내에서 공론화 주장⁵⁵⁾
 -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주장은 키르기스스탄 헌법의 세속주의 조항 삭제 건, 이슬람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세속주의 원칙을 강조하면 히잡을 쓰고 공공장소에 다녀야 하는 여성들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이오만 누루 정당이 주요 이념을 이슬람 ‘민주주의’라고 설정
 - 창립자이자 이슬람주의자인 목투베크 아르스탄베크 Мыктыбек Арстанбек, Muktybek Arstanbek은 “우리 당은 이슬람 종교에 기반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근거로 공식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⁵⁶⁾
 - 또한 최근 들어 키르기스 사회가 다소 우경화, 이슬람화되고 있는 신호 해석 가능
- 2020년 집권한 사드르 자파로프 Садыр Жапаров, Sadyr Japarov 대통령은 보수적, 이슬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족주의 성향
 - 자파로프 정부 출범 직후, 이오만 누루당은 자파로프 정부 지지의사 표명, 이후 새로 구성된 종교위원회와 법무부는 해당 정당을 공식 승인
 - => 이슬람 기반 정당 탄생은 키르기스스탄 정치권 내 종교색을 가진 정당의 출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제공
- 2020년 이후 키르기스스탄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 우경화 포착
 - 극단적 보수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남성 집단의 출현,⁵⁷⁾ 여성 인권주의자, 페미니

55)

<https://www.rferl.org/a/kyrgyzstan--first-islamic-party-arstanbek-controversy/31081978.html>.

56)

<https://www.rferl.org/a/kyrgyzstan--first-islamic-party-arstanbek-controversy/31081978.html>.

57) 보수 우익단체 중 가장 활동적 단체로 크르크 초로 Kyrk Choro, forty warriors (40인의 전사)가 있다. 2010년 출범 이후 여성주의 단체에 공격적인 입장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트 단체, 성차별 운동가, 동성애자, 서구적 가치를 따르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폭력 행사⁵⁸⁾

- 남성적, 보수적, 전통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회 내 이슬람식 율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⁵⁹⁾

2) 우즈베키스탄

- 드러내놓고 실천하는 이슬람 정체성
 - 독립 초부터 2010년대까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몸을 가리는 히잡(여성)을 착용하거나 혹은 수염을 기르는(남성) 행위에 대해 세속주의에 익숙한 일반 무슬림 대중들은 지나치게 종교적, 종교 '극단주의자'로 인식하는 경향 지배적이었음
 - 이런 인식은 전반적으로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 통치 시기 이슬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내 평균적 인식이었음
- 변화의 계기는 미르지요예프 정부에 의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후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특히 타슈켄트와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무슬림 복장을 드러내 놓고 표현하는 '짧은' 무슬림들이 꾸준히 증가
 - 2016 수감된 무슬림 및 반체제인사 사면, 종교 자유 완화⁶⁰⁾
 - 2021 히잡 착용 금지 조항 폐지: 단, 과거 카리모프 시기에 비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완화된 것일 뿐, 긴 수염을 기른 남성이 거리에서 구금 혹은 면도 강요,⁶¹⁾ 여성이 히잡을 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함,⁶²⁾ 종교적 출판물은 여전히 통제
- 카리모프 시기 히잡을 착용한 것은 대부분 노인 여성으로 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금지되었으나, 최근(2022.07)에는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한편 여학생 교복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규정보다 짧은 것은 금지,⁶³⁾ 거리에서 종교 서적을 읽는 청년 증가, 이슬람 서적과 의복을 쉽게 구매 가능⁶⁴⁾
- 종교 서적 출판: 우즈베크 내에서는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받은 소수만이 종교 서적 출판 가능, 2019년 우즈베크 학자가 출판한 쿠란 타프시르(tafsir)⁶⁵⁾를 사기 위해 다수의 우즈베크 인

58) Aitkulova, Meerim. (2021). "Kyrk Choro-A Neo-Nationalist Movement in Kyrgyzstan", *Journal of Religion and Violence*. Volume 9, Issue 1.

59) International Women's Day: Rights activists attacked and detained, <https://www.dw.com/en/international-womens-day-rights-activists-attacked-and-detained/a-52682833>.

60) Mansur Mirovalev. "Rise In Islamization In Uzbekistan Has Progressives, Ethnic Russians Concerned" at RFERL 2021.11.04., <https://www.rferl.org/a/uzbekistan-islamization-russians-worried/31546243.html> (검색일: 2023.08.12.)

61) Радио Озодлик. "В Ташкенте вновь прошел рейд против бород" 2022.05.10., <https://rus.ozodlik.org/a/31842726.html> (검색일: 2023.08.12.)

62) Mushfig Bayram. "UZBEKISTAN: Targeted for being a devout Muslim woman" 2022.01.19., https://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2712 (검색일: 2023.08.12.)

63) Kun uz. "Qizlarning maktabga milliy ro'molda kelishi man etilmaydi - Xalq ta'limi vaziri" 2022.07.27., <https://kun.uz/uz/news/2022/07/27/qizlarning-maktabga-milliy-romolda-kelishi-man-etilmaydi-xalq-talimi-vaziri> (검색일:2023.08.12.)

64) Niginakhon Saida. "Uzbekistan's Islamic Revival, Online" 2022.08.25., <https://thediplomat.com/2022/08/uzbekistans-islamic-revival-online/> (검색일: 2023.08.12.)

65) 쿠란에 대한 해석, 논평 등을 의미함.

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기도 함.⁶⁶⁾

- 최근 우즈벡 내에서의 이슬람 확산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더욱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이슬람 학자들은 국가 승인 범위 내 이슬람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용,⁶⁷⁾ 가장 저명한 사이트는 “islom. uz(<https://islom.uz/>)”로 질의응답을 통해 종교적 문제를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형태⁶⁸⁾
- 2018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령으로 와크프(waqf)⁶⁹⁾ 설립: Payme, Click, Upay, Oson, Paynet 등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송금이 가능토록 하고 개인의 일정 저축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해당 기금(zakat)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
- 2022년 7월에만 동 기금은 17억 우즈벡 сом(2021년 같은 달의 11억 сом에서 증가) 이상 모금⁷⁰⁾

=> 이슬람 관련 활동은 정부의 관리/통제에 의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이슬람 활동은 용인 불가⁷¹⁾

=> 미르지요예프 집권 이후 우즈벡 내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통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그러나 이슬람화 물결과 함께 사회의 보수화 경향도 두드러짐. 2021년 타슈켄트에서는 동성애 권리 옹호하는 블로거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약 100명의 시민들이 동성애자 권리 운동에 반대하는 집회 개최⁷²⁾

66) Kun uz. “Buyurtmasigayoq turnaqator navbat yuzaga kelgan mo‘tabar tafsir” 2019.09.07., <https://kun.uz/uz/news/2019/09/07/buyurtmasigayoq-turnaqator-navbat-yuzaga-kelgan-motabar-tafsir> (검색일: 2023.08.12.)

67) Niginakhon Saida “Uzbekistan’s Islamic Revival, Online” 2022.08.25., <https://thedi diplomat.com/2022/08/uzbekistans-islamic-revival-online/> (검색일: 2023.08.12.)

68) **islom. uz** <https://islom.uz/>

69) 이슬람 종교에서 무슬림들이 종교적, 자선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함.

70) Niginakhon Saida “Uzbekistan’s Islamic Revival, Online” at THE DIPLOMAT, 2022.08.25., <https://thedi diplomat.com/2022/08/uzbekistans-islamic-revival-online/> (검색일: 2023.08.2.)

71) Madina Amin. “It’s Karimov Era 2.0 for Muslims in Uzbekistan ”2023.06.12., <https://thedi diplomat.com/2023/06/its-the-karimov-era-2-0-for-muslims-in-uzbekistan/> (검색일:2023.08.12.)

72) Agnieszka Pikulicka-Wilczewska. “Uzbekistan’s Online Religious Revival” 2021.04.22., <https://foreignpolicy.com/2021/04/22/uzbekistan-online-religious-revival-islam-radicalism/> (검색일: 2023.08.12.)

; Malik Mansur “Uzbek Blogger Who Called for Gay Rights Hospitalized After Attack” 2020.02.10., <https://www.voanews.com/a/press-freedom-uzbek-blogger-who-called-gay-rights-hospitalized-after-attack/6204046.html> (검색일: 2023.08.12.)

3. 중앙아 국가 간 협력(갈등 감소-국경 확정, 경제 협력 증대)

- 2017년 이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호적 상호관계를 추구하면서 수자원 및 국경 문제와 관련 군사적 긴장 완화 모색⁷³⁾
- 과거, 중앙아 5개국은 2009년 4월 아랄해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단 5차례 정상회의(1991년 아쉬하바트, 1993년 타슈켄트, 1995년 다쇼구즈, 1998년 아쉬하바트, 1999년 아쉬하바트)만이 진행⁷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

- 2017년 11월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지역안보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entral Asia)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5개국 정상 간 정례회의 제안, 중앙아시아 정상회의(Central Asia Leaders Summit) 출범⁷⁵⁾

=> 러시아가 들어가지 않는 중앙아시아 국가만의 정례회의라는 상징성

73) Akram Umarov. “[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충돌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에 주는 함의.” 2021.08.11., <https://csf.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systemcode=04&brdctNo=318877> (검색일:2023.08.11.)

74) RFERL. “Why This Central Asian Summit Could Be Different.” 2018.03.14., <https://www.rferl.org/amp/qishlow-ovozi-central-asian-summit-astana/29099148.html> (검색일: 2023.08.11.)

75) 조영관. (2022). “중앙아시아의 독자적 지역협력 모색, 정상회의 출범.” 『SNCUAC 다양성+Asia』, 19(0), <http://diverseasia.snu.ac.kr/?p=5485> (검색일: 2023.08.10.)

표 1 독립 이후 중앙아 역내 협력

연도	기구	목적	참여국
1994	중앙아시아연합 (Central Asia Union)	2000년까지 EU를 모델로 한 단일 경제 공간 창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1995	중앙아시아 경제연합(Central Asian Economic Union,)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불참(영세중립국 선언 1995)
1998	중앙아시아경제공동 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타지키스탄 1998년 참여
2002~ 2006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EC에 비해 더 넓은 범위 협력,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 및 정치적 극단주의 공동 대응 2005년까지 공동 자유 시장 및 관세, 통화 연합	*2006년 EAEC에 통합
2006~ 2017	중앙아 국가 간 양자 협력 위주, 다자협력 움직임 미미		
2018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제안으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		

- 경제 및 안보 분야 관련 협력 증가 추세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의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져 2007년 54억 달러(한화 약 6조 8,000억 원)를 기록했던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액은 2021년에 159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2,000억 원)까지 성장함(Nuridinova 2022).⁷⁶⁾
 - 2021년 제3차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의 현 상황,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됨(Buranelli, 2021/08/12)⁷⁷⁾
 - 2022년 제4차 중앙아시아 회의에서는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조약” 체결, “2022-2024년 지역 협력 개발 로드맵” 채택, “Central Asia +” 다자 형식의 틀 내에서

76) Nuridinova, S. “Prospect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2022.06.20.,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30961&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3.08.11.)

77) Filippo Costa Buranelli. “3rd Meeting of Central Asian Leaders: A Small Step Toward the Formation of a Regional Order?.” 2021.08.12.,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08/3rd-meeting-of-central-asian-leaders-a-small-step-toward-the-formation-of-a-regional-order/> (검색일 : 2023.08.08)

중앙아시아 국가의 상호 협력 증대, 중앙아시아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 "그린 아젠다" 프로그램 승인, 아랄해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Save the Aral Sea) 총재의 권한 확대 승인 등의 성과 도출(ПРЕЗИДЕН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22/07/21)⁷⁸⁾

=> 특히나,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등 급변하는 역내 정세에 중앙아 국가들의 공동 협력 및 대응 의지가 Central Asia+ 다자 틀의 파트너 확대로 연결 중

[중앙아 5+ α형태 다자회의 활성화]

- 제 1차 중앙아 5개국-인도 정상회의 개최: 동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2022년 1월)된 아프가니스탄 지역안보대화에 중앙아 5개국 국가안보국 국장들이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중앙아+인도 차원의 접근 방식 논의
- 중앙아 5개국-EU 제 1차 정상회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2022년 10월 28일). 중앙아 및 EU는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 평화, 안보,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의 존중, 국제 분쟁의 평화적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News Central Asia, 2022/10/28)⁷⁹⁾⁸⁰⁾
- 2023 2차 정상 회의에서 유엔 헌장, 특히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의 원칙, 무력의 불사용 또는 위협,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
 -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공동 우려, 중앙아시아를 위한 유럽연합 전략(EU Strategy for Central Asia)과 보편적 원칙에 따라 기존의, 새로운,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연합(EU)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주장
 - Global Gateway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연결성 목표를 다양화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
- 2023년 6월 2일 중앙아 5개국 + 걸프 아랍 국가 회의(제다)(중앙아 5개국 참여)⁸¹⁾

=> 러시아 이외의 다양한 국가/지역과의 협력 관계 강화는 중앙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발전 전략 중 하나로 풀이,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나 러시아의 역량(중앙아시아

78) ПРЕЗИДЕН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Дан старт начал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мбар-Атинской ГЭС-1." 2022.06.08., https://www.president.kg/ru/sobytiya/22677_dan_start_nachalu_stroitelstva_kambar_atinsko_y_ges_1 (검색일 :2023.08.11.)

79) News Central Asia. "Astana hosted the First EU-Central Asia Summit." 2022.10.28., <https://www.newscentralasia.net/2022/10/28/astana-hosted-the-first-eu-central-asia-summit/> (검색일 : 2023. 08.11)

80) 2022. 11. 18~19 중앙아 5개국- EU 장관 회의(사마르칸트), 2023.02.23~24 환경 및 물에 관한 중앙아5개국-EU 고위급 회의(로마), 2023.03.10. 시민사회 포럼(타슈켄트), 2023. 05. 18~19 중앙아5개국-EU 경제 포럼(알마타), 2023년 6월 2일 중앙아 5개국 -EU 제 2차 정상회담(출판 아타) 등 개최 Со-вместное пресс-коммюник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резидента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вета 2023.06.02., <http://www.akorda.at/ru/sovместное-press-kommyunike-glav-gosudarstv-centralnoy-azii-i-prezidenta-evropeyskogo-soveta-253950>

81) Президент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Саммит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Сов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Залива» 2023.07.20, <http://www.akorda.at/ru/prezident-kasym-zhomart-tokaev-prinyal-uchastie-v-pervom-samnite-centralnaya-aziya-sovet-sotrudnichestva-arabskih-gosudarstv-zaliva-206553>

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감소, 이에 따라 다른 협력 대상을 찾는 것이 국가 발전 전략에 이
득

[중양아 정상 간 소통/협력 논의 증가]

- 카자흐-우즈베크:
 - 2022년 12월 양국 정상회담(타슈켄트) : 동맹 관계에 관한 조약과 국경 경계에 관한 협정, 공동 건설 프로젝트 체결, 무역 및 운송 회랑 개발 협력 등⁸²⁾
 - 2023년 3월 비공식 정상회담(심켄트) : 동맹 관계 강화, 무역 및 경제 협력 발전⁸³⁾
 - 2023년 5월 1일 카-우 정상 전화 통화 : 2023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 축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협력 강화⁸⁴⁾
 - 2023.06.12. 카-우 정상 전화 통화 : 카자흐스탄 아바이 지역 대규모 화재에 대한 우즈베크 측의 애도 전화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⁸⁵⁾
 - 2023.07.10. 카-우 정상 전화 통화 : 미르지요예프 재선 축하 및 양국 관계 심화⁸⁶⁾
 - 2023.07.24. 카-우 정상 전화 통화 : 미르지요예프 생일 축하. 양국 간 협력 강화⁸⁷⁾

[국경 문제 해소]

- 2017년 이후 중앙아 역내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국경 획정”관련 갈등 감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바기스(Bagys) 마을⁸⁸⁾, 2021년 5월 양국 정부

82) “Kazakhstan, Uzbekistan Sign Treaty on Allied Relations, Agreement on Border Demarcation to Foster Strategic Partnership” 2022.12.23., <https://astanatimes.com/2022/12/kazakhstan-uzbekistan-sign-treaty-on-allied-relations-agreement-on-border-demarcation-to-foster-strategic-partnership/>

83) Президент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2023.03.03., <http://www.akorda.at/ru/prezident-kasym-zhomart-tokaev-provel-vstrechu-s-prezidentom-uzbekistana-shavkatom-mirziyoevym-32536>

84)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ровел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2023.05.01., <http://www.akorda.at/ru/kasym-zhomart-tokaev-provel-telefonnyy-razgovor-s-prezidentom-uzbekistana-shavkatom-mirziyoevym-145028>

85)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2023.06.12., <http://www.akorda.at/ru/telefonnyy-razgovor-glavy-gosudarstva-s-prezidentom-uzbekistana-shavkatom-mirziyoevym-125638>

86) Состоялс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2023.07.10., <http://www.akorda.at/ru/sostoyalsya-telefonnyy-razgovor-glavy-gosudarstva-s-prezidentom-uzbekistana-shavkatom-mirziyoevym-106953>

87)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вел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2023.07.24., <http://www.akorda.at/ru/glava-gosudarstva-provel-telefonnyy-razgovor-s-prezidentom-uzbekistana-shavkatom-mirziyoevym-24610>

88) 바기스 마을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eknt)에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카자흐인들이 마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마을이었다. 바기스 마을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소속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세금도 우즈베키스탄에 납부하였다. 결국 바기스 마을은 독립을 선언하며 대통령 선출을 시도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경찰에 의해 진

의 합의로 카자흐스탄 소속으로 변경되며 갈등 일단락,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간 실시된 카자흐-우즈베크 합동 국경 위원회 회의에서는 양국 국경 설정을 위한 합의 초안이 마련(Uz daily, 2022/08/06),⁸⁹⁾ 2023. 7 합의 문서 효력 발생⁹⁰⁾

-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정부는 2018년 1월 국경획정 협정에 비준하는 법안을 서명하며 458km에 달하는 국경 경계 설정 및 후속 경계 설정 완료(LENTA. RU, 2019/10/19)⁹¹⁾

- 2022년 2월 우-키 국경 구획 협상을 위한 기구, 입법 등에 관한 논의, 동년 8월에는 양국 정부 대표단이 키르기스 공화국 북부의 이식쿨(Issyk-Kul)지역 출폰-아타(Cholpon-Ata)시에서 국경 구획 협상을 개시(주 키르기스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2/11/18).⁹²⁾

- 2018년 3월 9일 양국은 합의에 따라 우즈베크-타지크 국경의 경계 대부분이 정해졌으며, 양국은 국경 구획 합의 절차를 2019년 마무리하고, 합의 내용이 반영된 지도를 제작(Kun UZ, 2022/06/15)⁹³⁾

-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문제는 여전히 보류 상태,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지방에 타지키스탄의 독립령 보루흐(Vorukh) 지역에서 2021년 4월 대규모 교전, 2022년 1월 군사적 충돌 발생, 2022년 9월 바트켄 공항 포격 등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유혈사태를 동반한 양국 충돌이 발생(Reuters, 2022/09/20)⁹⁴⁾

압되었다.

89) Uz daily. "Uzbekistan and Kazakhstan agreed on a draft Treaty on the demarcation of the Uzbek-Kazakh state border and completed the formation of a package of draft final documents" 2022.08.06., <https://www.uzdaily.uz/index.php/en/post/74776> (검색일 : 2023.08.08.)

90) [https://astanatimes.com/2023/07/border-demarcation-agreement-between-kazakhstan-and-uzbekistan-comes-into-force/\(2023-08-23\)](https://astanatimes.com/2023/07/border-demarcation-agreement-between-kazakhstan-and-uzbekistan-comes-into-force/(2023-08-23)).

91) LENTA. RU. "Безграничная угроза Почти 30 лет эти страны не могут поделить границы. Их конфликт опасен для России." 2019.10.19., https://lenta.ru/articles/2019/10/19/mir_bez_granic/ (검색일 : 2023.08.11)

92) 주키르기스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 문제 관련 주재국내 동향." 2022.11.18., https://overseas.mofa.go.kr/kg-ko/brd/m_9145/view.do?seq=1346922 (검색일 : 2023.08.07.)

93) Kun UZ. "Uzbekistan, Tajikistan discuss border demarcation issues." 2022.06.15., <https://kun.uz/en/news/2022/06/15/uzbekistan-tajikistan-discuss-border-demarcation-issues> (검색일 : 2022.12.13.)

94) Reuters. "Kyrgyz leader urges calm after deadly conflict with Tajikistan" 2022.09.2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yrgyz-leader-urges-calm-after-deadly-conflict-with-tajikistan-2022-09-19/> (검색일 : 2023.08.08)

4.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중앙아 관계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억제하고, 유럽-중앙아 교역에서의 문지기 역할과 중앙아의 석유, 천연가스 수출 독점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⁹⁵⁾
- 그러나 중앙아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러시아-중국 간 관계도 현재 협력적 관계에서 언제 경쟁적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음
 - 러시아에 있어 중국은 중앙아 지역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양가적 관계, 2017년 EAEU-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 체결⁹⁶⁾ 하였으나, EAEU를 통해 중앙아 내 중국의 영향력 커지는 것을 억제, 상쇄하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
- 2022 러-우 전쟁과 서방의 대러 제재는 중앙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수도 있으나, 여전히 러시아는 중앙아 지역에서 안보 부문에서는 지배적 행위자라 볼 수 있음
 - 특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앙아 내 안보 불안은 고조되고, 그 결과 러시아는 주요 행위자 역할 유지⁹⁷⁾

[2022. 10. 14 제 1차 러시아-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⁹⁸⁾

- 중앙아-러시아 간 교역량 증가세
 - 2021년 대비 34%증가(2022년 기준), 6자 협력 기반 강화, 중앙아시아-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개발 및 채택(에너지 산업, 물류 등), 우정, 선린,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 푸틴 연설 주요 내용: 글로벌 정세 불안정 및 러-중앙아 통합 발전 방해 언급하며,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임을 주지, 동맹 관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 특히 CICA, CIS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당국과의 협력 당부⁹⁹⁾

95) Kembayev, Z. (2018). Implementi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from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o the silk road union?. Asia Europe Journal, 16(1), 37-50.

96)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China and the EAEU declared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the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2017/10/02.,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nae/news/Pages/2-10-2017-5.aspx> (검색일:2023.08.01.)

97) Engvall, J. (2022). Russia's War in Ukraine: Implications for Central Asia.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14.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712->

98)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саммит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Россия» 2022.10.14., <http://www.akorda.at/ru/glava-gosudarstva-prinyal-uchastie-v-rabote-sammitya-centralnaya-aziya-rossiya-1493353>

99) President of Russia. “Russia-Central Asia Summit” 2022.10.1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598>

[러-우 전쟁에 대한 중앙아 5개국의 반응]¹⁰⁰⁾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침묵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 정부는 스스로 '중립'을 선언,¹⁰¹⁾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자파로프 대통령 또한 중립 선언 및 평화 협상 플랫폼 제공 제안¹⁰²⁾, 다만, 자파로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¹⁰³⁾ 실제로 "돈바스 영토의 평화로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공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난을 받음¹⁰⁴⁾
 - 카자흐스탄: 대화 촉구 및 중재 역할 제안 기조가 유지¹⁰⁵⁾
 - 가장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독립 공화국으로 선언하자 바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 우크라이나에 카자흐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 거부, 2022.1. 카자흐스탄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군대의 지원을 받은지 채 한달이 지난 시점의 거절
 - 그러나 카자흐는 국제 석유 운송(파이프라인)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대러 제재 또한 카자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태¹⁰⁶⁾
 - 카자흐스탄 알마티 내에서는 2022년 3월 6일 약 3,000명 규모의 반전 시위 발생
- =>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단 하나도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 =>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연대의 강도를 지속하기 위해, CIS나 CSTO, CICA,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러시아-중앙아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빈도도 늘렸으며, 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 3자 가스 동맹을 적극 제안(2023)하는 등의 행보를 보임

끝.

100) Engvall, J. (2022). Russia's War in Ukraine: Implications for Central Asia.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14.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712->

101) KUN.UZ. "Ўзбекистон вазмин, нейтрал позицияда" — Шерзод Асадов" 2022/02/26/. <https://kun.uz/news/2022/02/26/uzbekiston-vazmin-neytral-pozitsiyada-sherzod-asadov> (검색일:2023.08.10.)

102) "Переговоры глав МИД РФ и КР закончились. Говорили о ситуации в Украине" 2023.08.10. https://24.kg/vlast/226514_peregovoryi_glav_mid_rfikr_zakonchilis_govorili_osituatsii_vukraine/ (검색일: 2023.08.10.)

103)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Киргизии первый зарубежный визит совершит в Россию" 2021.01.25., <https://ria.ru/20210125/kyrgyziya-1594421566.html> (검색일: 2023.08.10)

104)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3/02/central-asian-countries-now-have-two-big-worries-about-russia/>

105) 카자흐스탄은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공화국 지위 불인정, Washington post. "Central Asian countries now have two big worries about Russia" 2022/03/0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3/02/central-asian-countries-now-have-two-big-worries-about-russia/> (검색일: 2023.08.10.)

106) "Kazakhstan hopes Caspian Pipeline sanctions waiver will leave export route open" <https://www.upstreamonline.com/production/kazakhstan-hopes-caspian-pipeline-sanctions-waiver-will-leave-export-route-open/2-1-1181751> (검색일: 2023.08.12.)